



수신	각 언론사 과학.노동.사회부 담당 기자 등
발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연락처	담당: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배포일시	2024년 12월 10일 11시 00분
제목	오영주 중기부 장관 민생경제 운운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민생경제 운운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

-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확인, 내란 동조 세력 규탄한다! -

테크노파크가 속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9시 40분쯤 개최를 통보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늦게 도착하여 의견 개진이 어려웠고,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 했다고 한다.

이번 내란 기도는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별개로 하더라도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계엄법 제2조 ⑤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하나같이 어쩔 수 없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국무위원들도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영주 장관도 예외는 아니다.

소극적인 시늉으로 친위쿠데타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으며, 만약 친위쿠데타가 성공했을 경우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 세력과 동조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이후 환율은 치솟고 주가는 폭락하며,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외교관 출신이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을 맡는다는 사실에 오영주 장관은 선임 과정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국 13개 테크노파크 조합원 1,500여명을 대표해서 내란 부역자 오영주에게 준엄하게 요구한다. 오영주 장관은 내란방조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장관직을 사퇴하라!

2024년 12월 10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